



호주 호스피스 견학 보고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요청에 응하고자 한국 카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마련한 제 3차 호스피스 견학을 9월17일~9월28일까지 호주로 다녀왔다.

견학 인원은 서울, 강릉, 부산 등지의 의사, 간호사, 교수 및 봉사자 등 16명이었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람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Mt. Olivet Hospital (Brisbane-Queensland)

이 병원은 자선 수녀회에 의해 1957년에 설립되었고 1989년 병원 내 3층 전체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28병상) 개설하였다.

Palliative Care에 있어서는 Queensland주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간호사, 의사의 교육에 공헌이 크다고 한다.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와 가족이 안락하게 지내도록 가정적인 분위기로 시설이 잘 되어 있었으며, 환자들이 정상인처럼 움직이며 지내도록 방안의 침상, 식탁들의

가구들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놓았다.

환자는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옷차림 식단 등의 선택이 가능하며 외출이나 산보도 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분야별 전문요원들이 어떻게 팀워크를 하고 있는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

구성인원은 의사, 사목자, 상담사, 사별 간호사, 작업요법사, 물리 치료사, 자원봉사자 등이었다.



병원앞에서 인솔자와 함께



호스피스팀의 역할교육

Karuna Hospital Service (Brisbane)

1991년 티베트의 불교재단 도움으로 설립되어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곳은 입원 시설은 없고 모두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으며 운영 방법은 24시간 제도로 간호사 "On Call" 제도이며 환자들은 주로 암환자이고 AIDS 환자도 약간 있었다.



환자를 위한 최신 분리형 욕조

스님과 일반인들이 함께 팀워크 되어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종교에 편중없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환자와 가족을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구성요원으로는 총 책임자, 봉사조정자, 사목자 간호사 7명 상담사 2명, 자원봉사자 60명, 의사는 병원 근무하시는 분 중 촉탁의로 운영되고 있다.



건학 장소에서 호주 스님과 함께

°Mercy Hospice (Newcastle)

The Sisters of Mercy에 의해 Hunter Area에 1021년 Newcastle Mater Misericordiae Hospital이 설립되었다.

Mercy Hospice는 이 병원에 속해 있으며 10여년간 지역에서 가정 호스피스를 해오는 한편,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993. 3. 26 호스피스를 개원했다.

시설면에는 병실을 20병상으로 일반 병실보다 크고 안락하게 준비되었고 TV, Radio, Video시설이 있어

구내 소 성당의 예절이 중계되며 환자의 가족과 방문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도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건물 상층에는 관리 사무실, 도서실, 교육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면이나 분위기 등 주변환경이 매우 아름답고 평안한 곳으로 참 좋았다. 또한 호스피스 팀원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서로간의 역할이 평등하게 잘 어울리고 있었다.

Mackillop House (Newcastle)

1995년 1월 복자품에 오르신 Mary Mackillop 수녀님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는 이 집은 그가 창립한 The Sisters of ST. Joseph회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다.

1989. 7. 14. 옛 수녀원 건물을 이용하여 7명의 AIDS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2층집을 마련하였다.

한편 AIDS 교육팀(수녀, AIDS 감염자, 환자 가족)이 있어 AIDS 예방교육 활동도 하고 있다.

Calvary Hospital (Sydney)

호주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역단위 기관을 통해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데 이 병원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공립 병원이다. 그런데 운영은 개인이 하며 시드니 남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The Sisters of little Company of Mary 수녀들과 일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수도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Calvary 병원 호스피스 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를 위해서 다른 병원과 협력, 교류 관계를

잘하고 있어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있다. 전문인들과의 교류, 환자나 가족에 대한 정보교류도 원활히 되어서 환자와 가족이 가정이나 호스피스 병원 어느곳에나 호스피스적인 보살핌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병원은 총 80 병상으로 Palliative Care 부서와 재활 분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호스피스 : 39병상, 재활 : 19병상, P.C(Palliative Care) : 20병상, Day Hospital : 2병상).

Sacred Heart Hospice (Sydney)

자선 수녀회가 1890년 이곳 Darlinghurst에 호스피스를 설립했고 1988년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이곳은 100병상으로 AIDS 환자가 20%이고 대부분은 암 환자들이다. 특히 이 지역에 많은 AIDS 환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잘 되고 있어 그리스도인의 정신, 가치관, 윤리관이 뚜렷했다.

이 곳 호스피스에서는 입원하거나 가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돌보아 주고 있다.

입원 환자의 대상은 ① 통증 및 증상 조절 ② 잠시 쉬기 위함 ③ 임종 ④ 가정에서 증상 완화가 어렵거나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이다.

- Day Hospital- 만남의 장소, 개인 취향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활동
 - 돌보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잠시 휴식 제공
 - Multidisciplinary Team원을 만나는

기회 제공

- 가정에 있는 분들의 증상 조절
- 미용, 이용, 마사지, 안위도모

· Community Outreach Service

- 지역 공동체 간호사의 가정방문
- 지지와 상담
- 환자와 가족 안위 도모
- 모든 호스피스 팀원들과의 연락

- 24시간 "On call" Service

- 타 전문 의료인들과의 상담 연결

· 교육 센터- Palliative Care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 지원과 공동체가 인식하도록 도운다.

- 교육 대상을 호스피스 직원, 의료 전문인, 일반인 등
- Palliative Care에 대한 책과 잡지 소개 등.

“심볼응모”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는 호스피스정신의 아름다움과 귀한 뜻을 담아 표현해 줄 마크를 널리 응모합니다.